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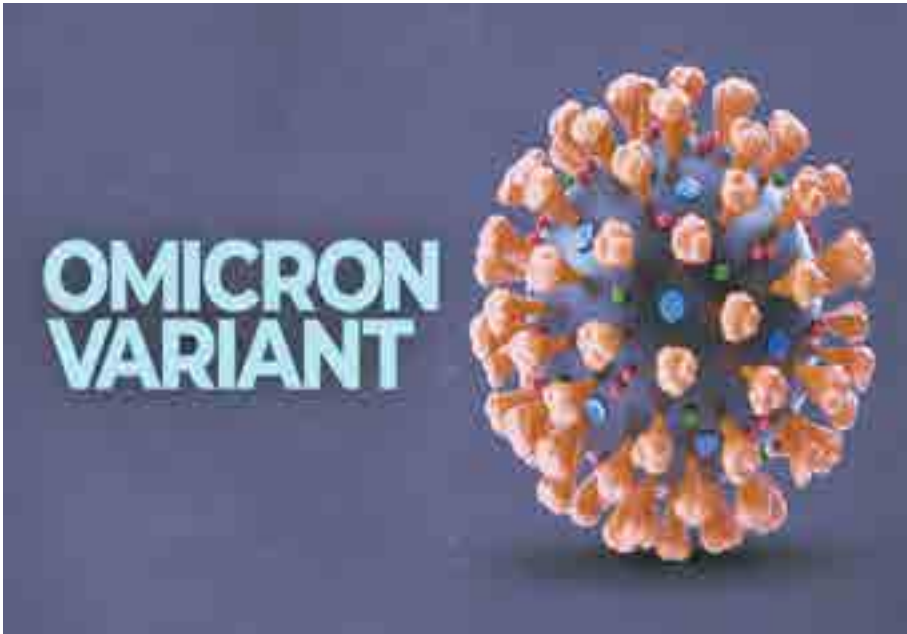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법

코로나 팬데믹 사망자 수가 2021년 11월 1일 500만명을 넘어섰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백신 보급과 부스터샷을 받고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자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네덜란드를 필두로 하여 재봉쇄령을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자 연일 4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환자가 500명에 달하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우려변이가 발생하여 전세계를 다시 긴장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인들이 받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가 무척 큼에도 언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매우 염려가 된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온다

한갓 지능이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가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원인이 우한의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박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이는 인류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따른 경고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즉 인간이 돈벌이를 위해 지구의 오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지에 서식하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동안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치명률을 가진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 실정이다.

사실 백신 개발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당한 다음에 백신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편적 인간에 실전의 가치를 존중하는 신



오미크론으로 위드코로나 명칭

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차선책에 불과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의 오만과 탐욕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명 존중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전세계는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전의 노멀 라이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했다. 문제는 제2, 제3의 코로나 팬데믹이 앞으로도 올 것이라는 점이다. 과연 인류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물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인류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어 팬데믹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백신 개발은 사후약방문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후의 처방은 사후약방문이다. 우리가 사스(SARS)에서도 경험했듯이 호흡기질환은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는데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차이인가?

바로 면역력의 차이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걸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들의 면역력 강화가 제2의 팬데믹을 막을 예방적 처방이라는 말이다.

수도를 통한 피의 정화

인간은 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수도를 통하여 사심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수도란 마음을 닦는 것이요 마음이란 피의 변형물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수도란 피의 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피의 정화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직시한 전인적 치유를 추구하는 대체의학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바이다.

기성종교뿐만 아니라 신종교에서도 수도의 목적이 개인의 피의 정화를 통한 전 인류의 영적 진화와 발전에 있다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 피의 정화를 말한 경전을 잠깐 살펴보면 열반경에 그 내용이 나온다. 즉 수도를 통하여 혈액이 정화되는 상

태를 단계별로 나누어 말했는데 소의 젖을 가공하는 순서에 따라 수다원이나 사다함처럼 일부분의 번뇌를 끊은 수도자의 불성은 젖과 같고, 아나함(緣覺)의 불성은 타락(麤)과 같고, 아라한은 생소와 같고, 벽지불로부터 10주 보살까지는 속소와 같고, 여래의 불성은 제호와 같다(열반경 32권, 아유히, 779쪽, 동국역경원 간)고 하였다.

또한 증산계열의 신종교에서도 개벽의 시기에 과질이 돌 때 의통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다. 의통이란 개벽기에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증산상제께서 주신 신패(神牒)라고 말하는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생각된다.

구세주께 맡기면 안전한 생명 보장돼

승리제단의 창시자인 조희성 총재 또한 과질이 돌 때 감로해인으로 과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감로해인으로 도를 이루게 되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는 인체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를 이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며 부처님이며 정도령이며, 모든 종교에서 지향하는 최종의 존재이다.

사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도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마귀의 종 노릇을 수천 년 동안 해온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단시간에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오직 유일한 방법은 구세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원리이다. 수도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진실로 구세주를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게 된다면 “면역력이 강화된 인체”를 갖게 되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외 없이 다 걸리게 된다. 그렇지만 동일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만 발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 가지고 오신 감로(甘露)를 받으면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진다. 감로는 병마(病魔)를 비롯한 모든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의 영이다. 따라서 감로를 받게 되면 점점 면역력이 강해진다.

감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승리제단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임을 100%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 감로를 받아 어떤 과질에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1>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

지금은 본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하나님이 안되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느냐? 선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 이

긴자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팔자가 되어버린다.

세상에서는 운명을 팔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전지전능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전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의미

여러분들이 메시아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야 메시아절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야

메시아는 구세주를 말하며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존재인 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왔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웃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선구자적 입장에서 전 세계에 나아가 메시아의 이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려면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행동과 마음으로 전하려면 메시아의 율법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율법이 자유율법이요 자유율법이 메시아의 율법인 고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율법을 자신 속에서 완성시키면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가 될 때에 메시아의 뜻이 완성됩니다.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메시아의 뜻을 완성시키지 아니하고 자신만 메시아라고 우리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율법을 지키어 구세주가 될 때에 비로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법, 사망을 이기는 법, 이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법, 영생의 법이 되는 자유율법을 지키며 세상에 나아가 이 자유율법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구세주, 가짜 메시아가 외쳤던 이 세상의 율법은 전체가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끝짐으로 승리하라!

바이러스 이기는 감로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부에 인류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의 원리에 따르면 평균이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썩으면 장구발레 생기듯이 핏속에서 평균이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므로 바이러스는 피의 원리에서 말하는 평균은 아니라고 하겠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핏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체에 들어와 감염 또는 전염되어 병이 생긴다. 그렇다고 피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정결한 피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으므로 피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인간의 탐욕 계속 과질 발생 부추거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계속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이름 모를 과질이 더욱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타락이라고 본다. 영적인 문제이지만 공기 오염의 주된 오염원은 인간들이라는 생각

이다. 인간의 생각의 물질이 공기속으로 퍼져 만물을 오염시킨다. 인간이 똥내내는 똥된 기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치사율을 가진 과질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간의 생각이 일종의 에너지이므로 인간에게서 방출되는 생각의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고, 만물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쁜 생각을 하면 만물을 악화시키며, 좋은 생각을 하면 만물을 강하게 한다.

감로로 면역력을 강화시켜라

앞으로 어떤 과질이 돌든 과질은 누구

